

강진 백련사 동박새의 동백꽃 사랑



동백은 추운 겨울에도 푸르른 상록수이다. 꽃이 없는 겨울에도 능히 아름다운 꽃을 피워 홀로 봄빛을 자랑한다. 동백꽃에는 향기가 없다. 대신 그 빛으로 동박새를 불러 꿀을 실컷 먹게 해준다. 꿀을 먹은 동박새는 동백꽃의 꽃가루를 옮겨 동백꽃에 열매를 맺게 해준다. 동박새가 없으면 동백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동백꽃이 없으면 동박새는 한겨울을 지낼 수가 없다. 지난 주말 천연기념물 제151호인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 동백림에는 동박새들이 은헤 감음을 하느라 분주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화순군 복싱으로 건강·체육도시 도약

전남 유일 복싱 전용체육관...전남체육회 복싱팀 화순서 담금질

‘스포츠 메카’ 화순군이 전남 유일의 하니움복싱체육관을 기반으로 복싱 종목 엘리트체육 전문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니움복싱체육관 건립에 이어 화순군체육회가 올해 전남체육회 복싱 실업선수팀을 맡아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 유일의 복싱전문체육관인 하니움복싱체육관은 지난해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이음체육관 옆 부지에 문을 열었다. 990㎡ 규모로 국제시합 규격을 갖춘 링 2개와 172석 규모의 관객석, 체력단련실, 훈련실, 라커룸, 심판대기실 등을 갖췄다. 샌드백 등 기본 운동기구는 물론 체성분 분석기 등 다양한 훈련 보조기구를 갖춰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군체육회는 올해부터 전남도체육회 복싱팀

을 맡았다. 남자선수 7명에 감독, 코치 각 1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화순읍 천사체육관 관장인 박구씨와 선수 출신 박지선씨가 감독과 코치를 맡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복싱팀 훈련에는 전남기술과학고와 화순중 복싱팀 선수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복싱체육관에서 대표선수 선발과 메달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복싱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학교 연계형 ‘1종목 스포츠클럽 사업’도 신청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복싱전용체육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체전과 각종 대회에서 화순군의 복싱 위상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체육회가 전남체육회 복싱 실업선수팀을 맡아 하니움 복싱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나주시, 도심에 농촌을 꽃피운다

도시농업전문가 25명 모집
유희지에 소규모 농장 경영
공익가치 확산·일자리 창출

나주시가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해 삭막한 도심에 농촌을 꽃피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도심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이다. 텃밭·주말농장을 넘어 도심의 빌딩이나 주택의 옥상, 가로변의 유희지를 이용한 유용식물재배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도심에서 먹을거리를 가꾸는 것은 물론 건강과 환경 개선, 환경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나주시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1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3기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3월17일부터 7월7일까지 총 15회(90시간) 진행된다.

도시농업의 이해 및 관련법, 텃밭 조성 설계·관리, 텃밭 작물재배 방법, 도시농업프로그램 기획, 안전 먹거리·로컬푸드 이해 등 기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농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업 활동 경력자 등을 우대한다.



나주시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2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모습. <나주시 제공>

수료생은 국가 공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의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수료생들은 학교 텃밭 감사 및 관리 인력, 도시농업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한다.

나주시는 2019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25명이 도시농업관리

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홍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에 교육, 건강, 여가, 공동체를 결합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명품청자 경매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매월 2회 50% 할인가로 시작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강진 명품청자 경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청자 경매는 강진을 찾아야 하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검색창에 ‘강진청자, 고려청자, 명품청자, 청자’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진행되는 매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경매는 매월 2회(1~15일, 16~말일) 진행하며, 판매가는 50% 할인 금액으로 시작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된다.

강진군은 온라인 경매 시행에 앞서 지난해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 간 시범적으로 경매를 했다.

경매 결과 2000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30여 명이 참여해 47만원에 입찰한 작품이 98만원에 낙찰되는 등 관심과 경쟁이 뜨거웠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강진 청자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온라인 경매를 통한 강진 청자



청자매병

청자향로

의 관심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친환경농업 실천 왕우렁이 80t 공급...3월까지 접수

함평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논벼 왕우렁이 공급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은 6712ha에 벼농사 제조용 왕우렁이 약 80t을 공급하며, 지원 비율은 친환경담 90%(자부담 10%), 일반담 80%(자부담 20%)이다. 신청 대상은 벼 재배농가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왕우렁이농법은 제조제 대신 왕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농법으로, 파·물타개비 등 일반 잡초는 물론 제조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까지 99%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는 별도의 차단망을 설치해 왕우렁이가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수거해야 한다.

또 동계작물 재배와 깊이갈이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2022년부터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왕우렁이농법 실천 농가는 지속적인 왕우렁이 활용을 위해 사업 완료 후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에 활용하는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없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지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2021 신간

인기리 판매중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애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5쇄 판매중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떠난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최신간 양장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